

“천안흥타령춤축제 2011” 관람객의 참여 분석을 통한 무용장르의 대중화 방안 연구

조 남 규*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및 논의

V.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1. 서 론

199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재 실시된 지방자치제도로 인하여 지역축제는 지역개발의 방식 중 일환으로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1995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약 10여년 간 지역축제의 양적 확대와 다양한 긍정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지역 활성화, 지역 이미지 제고, 시민의 문화 향수 기회 확대, 지역 주민의 화합과 일체감 조성이라는 지역축제의 가장 근본적인 주요한 목적에 미치지 못하고 일률편차적인 지역축제들이 개최되다 결국 많은 지역축제들이 실패를 맛보아야 했다. 문화관광부 총괄 보고서(2006)에 따르면 1996년 412건에서 2001년 519건, 2003년 832건으로 증가하였으며 2006년 1,200여건 등 지역축제는 질적 향상 없이 양적으로만 증가되었다. 그 동안의 대부분의 지역축제의 실패와 문제들에 대한 자각을 통해 각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그들의 지역축제에 대한 전문적 평가와 컨설팅을 통해 새롭게 재정비하고, 보다 근본적 목적에 다가가 지역민들에게 지역축제의 긍정적 효과를 파급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이에 2010년 12월에 문화체육관광부도 그 동안에

* 상명대학교 교수, cng1222@smu.ac.kr

지속적으로 성공적인 개최를 해 온 전국의 축제 중 44개의 우수문화관광축제를 선정하여 67억을 지원하였다. 특히 대표축제 2개, 최우수축제 8개, 우수축제 10개, 유망축제 24개를 등급별로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성공적인 지역축제들은 그 지역만의 고유한 콘텐츠를 이용하거나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여 그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들로 개최하고 있으며, 이 축제들을 통해 지역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레저문화와 관광산업의 산업적 특성과 마케팅에 대한 효율적 적용이 활발한데 비해 무용(춤)장르의 대중화를 위한 마케팅 기법은 아직까지 전문적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¹⁾ 그러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역축제인 안동과 천안에서 무용(춤)장르를 이용하여 지역 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천안시의 경우, 지역축제에 대한 지역적 관심과 발전을 토대로 1987년 제1회 ‘천안산거리흥타령문화제’로 시작하여 2011년 “천안흥타령춤축제”에 이르기까지 천안이라는 지역의 특수성과 대표성을 가지고 춤을 주제로 한 국내 지역대표축제로 현재까지 개최되어 오고 있다.

“천안흥타령춤축제”처럼 무용(춤)이라는 장르를 가지고 지역축제의 대표성을 가지는 예는 그리 많지 않지만 천안의 사례는 무용(춤)이라는 장르가 좋은 콘텐츠가 되고 있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미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과 함께 무용(춤)이라는 장르가 지역축제에 대표성을 지니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그 지역만의 고유한 콘텐츠를 이용하거나 새로운 콘텐츠를 잘 개발한 지역축제들을 통해 지역이 긍정적 효과를 가져가고 있는 사실들을 증명하고 있다.

이에 2011년 “천안흥타령춤축제”의 축제현황분석을 통해 앞으로의 무용장르가 보다 대중화되기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박미향 외(2005), 무용공연의 효율적 기획을 위한 마케팅 전략, 『무용예술학연구』 15, p. 99 재정리.

II. 이론적 배경

21세기는 급속도로 발전되고 복잡다단해진 사회체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휴식처로서의 공간과 놀이형태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욕구에 의해 많은 축제들이 새로이 개최되고 있다.

천안시도 과거 16년 동안 개최해 오던 지역축제인 ‘천안삼거리홍타령문화제’²⁾를 “천안홍타령춤축제”로 재개편하여 2003년도부터 천안을 대표하는 지역축제로 개최해 오고 있고 있다. 천안삼거리에 얽힌 전설과 홍타령을 모티브로 무용(춤)이라는 장르로 특화된 축제로서 경연방식의 개방형 축제로 유치원생부터 70대 노인까지 남녀노소 누구나도 국적과 지역을 불문하고 ‘다함께 흥겨운 춤을!’이라는 주제로 10명에서 50명 이하까지 팀을 만들어 참가할 수 있다.³⁾

사실 초창기의 천안의 축제 형태는 다른 지역의 축제와 별반 차이가 없이 특색없는 축제였으나 2003년도부터 재개편하여 천안의 축제를 경연위주의 춤 축제를 개최되, 기존의 프로그램 중 춤과 연계한 새로운 축제의 컨셉에 맞는 프로그램은 포함하고 축제의 빠른 정착을 위하여 일본의 삿포로에서 열리는 요사코이 소란마쓰리를 참관하여 축제의 노하우와 아이디어를 벤치마킹하기로 하였다.

2003년 6월 6일부터 9일까지 일본의 요사코이 소란마쓰리를 참관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천안시 내부에서조차 새로운 형태의 축제가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였고, 기존의 천안삼거리문화제에 관여하던 인사들로부터의 반발도 심하였다. 하지만 일본 요사코이 소란마쓰리 방문결과 후 긍정적인 확신을 통해, 기존의 ‘천안삼거리문화제’를 폐지하고⁴⁾ 2003년 ‘천안홍타령축제’로 새로이 재개편하였다.

2) 1987년도에 천안의 대표를 상징하는 ‘천안삼거리’와 ‘홍타령’이라는 높은 지역 지명도를 이용하여 라는 이름으로 축제를 시작하였으며 1990년 제4회 축제부터 ‘천안삼거리문화제’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3) 문화관광부(2006), 심층조사보고서「한국지역축제 조사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II」, 문화관광부, p. 153. 재정리.

4) 홍승덕(2008), 지역 축제에서 청소년 참여활성화방안 연구: 2007 천안홍타령축제를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벤치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61~62. 재정리

2003년 7월 31일에 축제홈페이지(www.dancecarnival.com)을 완성하고 천안을 주제로 한 주제곡인 흥타령노래가 8월 1일에 편곡되었으며, 8월 5일에는 새로운 흥타령에 흥타령춤이 새로이 안무되었다. 8월 6일에 단국대학교 김상락 교수에게 의뢰한 로고, 캐릭터, 지역을 대표하는 심볼을 확정하였으며 8월 4일부터는 경연에 참가하는 팀의 전국을 대상으로 접수받기 시작하였다. 그 후 모든 장르의 춤을 이용한 축제에 2003년 10월2일(목)부터 10월4일(토)까지 3일동안 42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처음으로 무용(춤)으로 천안을 알리는 경연대회 형식의 축제인 ‘천안흥타령축제 2003’로 개최되었으며⁵⁾ 천안의 특수성과 대표성을 가지게 되는 지역대표축제로 현재까지 개최되어 오고 있다.

2011년 대회부터는 “천안흥타령춤축제”로 개명하여 춤을 주제로 하는 축제의 대표성을 좀 더 부각시켰으며, 그 해 12월 27일에 문화체육관광부는 2011년 열린 전국 1,000여 개의 문화관광축제를 평가한 결과, 천안시의 “천안흥타령춤축제”가 작년에 이어 최우수 성적을 거뒀다고 천안시는 발표하였다. 2011년의 작년의 경우, 역대 최대인 128만 명이 찾아왔으며 280억 원의 경제유발효과를 냈다고 천안시는 밝혔다.

최우수축제로 지정된 “천안흥타령춤축제”는 물론,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모두 무용(춤)이라는 장르를 이용한 한국의 대표적인 지역 축제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하겠다. 안동의 경우는 탈춤이라는 전통을 이용한 무용장르를 통해 지역성을 특화한 지역축제라고 한다면, 천안의 경우는 모든 무용 장르를 이용하여 현대화를 통해 지역화를 특화한 지역축제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무용(춤)’이라는 장르가 현재 개최되고 있는 축제는 물론이고 다른 지역 축제에도 이용가능토록 하여 좀 더 대중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논의점을 위의 성공적 지역축제의 사례에서 도출할 수 있다.

이에 2011년에 개최된 “천안흥타령춤축제”의 분석을 통해 현 축제에서 무용장르의 대중적 인지도와 파급현황과 앞으로 무용장르의 대중화를 위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5) 앞의 책, p. 155, 재정리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천안흥타령축제’에 참가한 2011년 관람객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011년 관람객의 경우, 2011년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축제기간 중 관람객 384명의 설문조사를 통해 본 연구의 data를 수집하였다.

또한 설문조사의 오류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응답자를 직접 면담하여 각 문항에 대한 설명 후 설문을 수거하였으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축제기간 동안 매일 할당량을 나누어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을 정리한 내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

년 도	연구 대 상		
	총 인원	남	여
2011 (09. 28 ~ 10. 03)	384명 (100%)	149명 (38.8%)	235명 (61.2%)

2. 자료수집 및 연구내용

2011년에 개최된 “천안흥타령춤축제 2011”의 축제기간 중 본 연구자가 새롭게 설문한 data 중 일반사항과 무용장르의 대중화와 관련된 문항을 선별하여 연구하였다.

특히 기존의 선행연구로 실시된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천안시가 편찬한 “천안흥타령축제”의 평가보고서 자료를 이용한 본인의 2011년도 선행연구⁶⁾ 중 일반현황에 대한 기초분석결과와 자료를 이용하여 논의점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조남규(2011), “천안흥타령춤축제”를 통해 본 무용장르를 활용한 지역브랜드 확립에 관한 연구, 『한국무용과학회지』 26.

- 2011년 “천안홍타령춤축제” 관람객의 총 5개 주요프로그램(춤경연대회, 거리 퍼레이드, 개·폐막식행사, 국제민속춤축제, 춤난장)의 성별, 연령별, 직업별 참여현황의 교차분석을 통한 무용의 대중화와 관련된 연구
- 2007년~2011년 4년간의 “천안홍타령춤축제” 관람객 추이현황 및 일반사항 선행연구결과와의 비교분석 연구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윈도우용 SPSS/ WIN 17.0 K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표본의 특성과 변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빈도분석 및 변수 간 차이검증을 위한 교차분석, 만족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천안홍타령춤축제 2011” 관람객 춤관련 행사 참여 분석

“천안홍타령춤축제 2011”는 문화체육관광부지정 대한민국최우수축제로 기간은 2011. 09. 28(수) ~ 10. 03(월)까지 6일간 천안삼거리공원 등에서 진행되었으며 주요 행사내용은 학생부, 일반부, 홍타령부, 실버부로 나누어 진행되는 메인행사인 춤경연대회, 거리퍼레이드, 세계 각국의 전통적인 민속춤을 주제로 경연하는 국제민속춤대회, 부대행사로 진행되는 춤난장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두 무용(춤)을 주제로 축제의 전체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천안홍타령춤축제 2011”의 관람객들의 참여여부를 조사하여 파급력과 큰 규모력을 가진 축제라는 형식을 통해 무용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대중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한다.

이에 축제의 전체 행사 중 무용(춤)공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춤경연대회와 개·폐막식행사, 거리퍼레이드, 세계민속춤축제 등 4개 주요행사의 춤난장 등 관람객 참여 및 직접 실연해보는 참여형 프로그램의 참여분석을 성별, 연령별, 직업별로

나누어 빈도와 교차분석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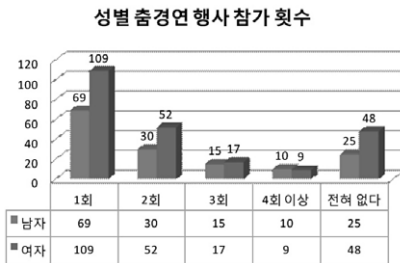
1) 춤경연 행사참여 분석결과 및 논의

“천안홍타령춤축제”의 주행사인 ‘춤 경연대회’는 학생부, 일반부, 홍타령부, 실버부 등 총 4개 참가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11년에는 2011. 04. 01(금) ~ 05. 31(화)사이 서면 또는 인터넷(<http://festival.cheonan.go.kr>)을 통해 참가신청 접수를 받았다. 시상내역은 전체 대상팀 1팀 1,000만원을 비롯해 각 부분별 총 43개팀 9,590만원을 수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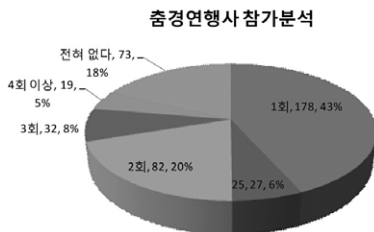
“천안홍타령춤축제 2011”의 주행사인 ‘춤 경연대회’의 학생부, 일반부, 홍타령부, 실버부 등 총 4개 참가부분을 총 참여한 횟수를 성별과 연령별, 직업별로 <그림 1>~<그림 8>까지의 총 8개의 세부차트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성별 및 참여횟수

<그림 1>를 성별분포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의 참여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



<그림 1> 성별로 본 춤경연 참가횟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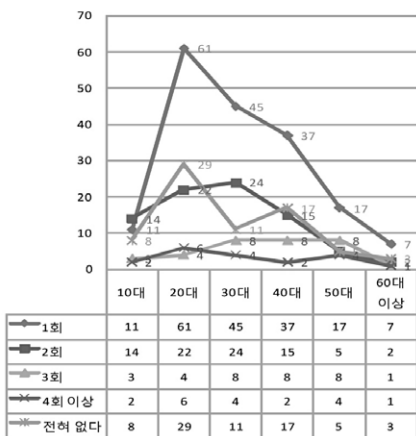
<그림 2> 횟수로 본 춤경연 참가 분석

며, <그림 2>과 같이 총 4개분야 중 1개의 행사를 관람한 빈도가 46%로 과반수 정도로 가장 높았으며, 축제기간 중 주행사인 ‘춤경연대회’를 관람하지 않은 빈도도 19%로 약 1/5 정도의 관람객이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적 참여횟수를 분석해 보면 약 80%가 주행사인 ‘춤경연대회’를 참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회 22%, 3회 8%, 총 4개 부분을 모두 참관한 빈도도 약 5%로 고루 참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②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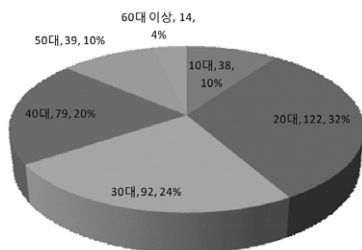
<그림 3>과 <그림 4>의 연령별 분석

연령별 출경연 참가횟수



〈그림 3〉 연령별로 본 출경연 참가횟수 분석

연령별 출경연 참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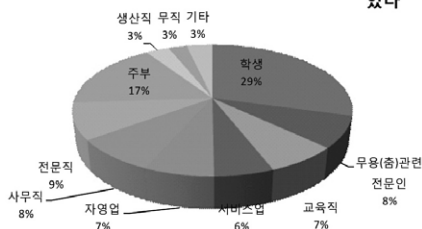
〈그림 4〉 연령별로 본 출경연 참가 분석

에서는 20대의 연령대가 1회를 관람한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③ 직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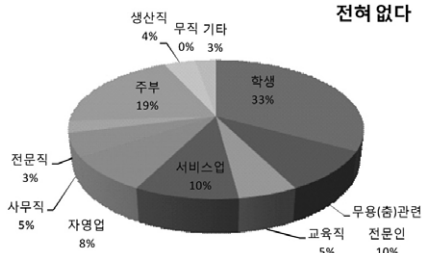
〈그림 5〉과 〈그림 6〉의 직업별 분석을 직업별 참여도만을 백분율로 다시 분석해보면, 학생이 29%로 가장 많이 참여하였지만 반대로 33%의 학생이 가장 많이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7〉과 〈그림 8〉와 전체 80%정도의 참여률의 직업별 분포도를 백분율로 살펴보면 학생다음으로 주부가 17% 정도로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용(춤)관련 전문인의 경우 8%정도로 전문직에 이어 4번째 순위로 나타나 이미 출경연대회의 관람객이 무용인들만의 잔치가 아닌 점차로 대중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 결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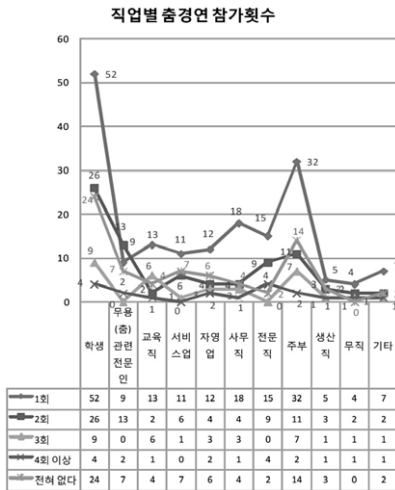


〈그림 5〉 직업별로 본 출경연 관람 참여부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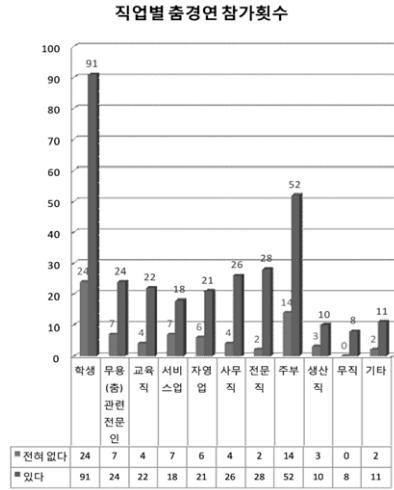
전혀 없다



〈그림 6〉 직업별로 본 출경연 관람 비참여부분 분석



〈그림 7〉 직업별로 본 춤경연 참가횟수 분석



〈그림 8〉 직업별로 본 춤경연 참가여부 분석

2) 거리퍼레이드 행사참여 분석결과 및 논의

“천안향타령춤축제”의 주요행사 중 하나인 ‘거리퍼레이드’는 약 2km의 천안시 전역에 구간별로 본 축제를 상징하는 상장차와 함께 약 50여개 팀 3,000명 정도의 경연팀들이 구간별로 퍼레이드를 하며 축제의 전반적인 흥을 올려주고 도착지에서는 참가자와 관람객이 하나가 되어 춤의 한마당으로 진행되는 천안시 전체의 도시 축제화를 이루는 행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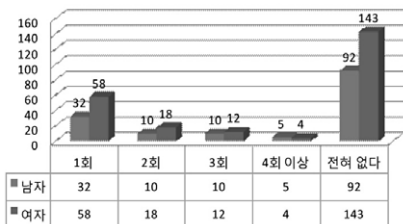
“천안향타령춤축제 2011”의 주요행사 중 하나인 ‘거리퍼레이드’의 총 참여한 횟수를 성별과 연령별, 직업별로 〈그림 9〉에서 〈그림 16〉까지의 총 8개의 차트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성별 및 참여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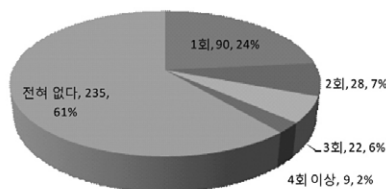
〈그림 9〉의 성별분포에서는 앞의 ‘춤경연대회’와 마찬가지로 남성보다 여성의 참여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0〉에서는 전혀 참여하지 않은 빈도가 약 61%로 과반수 이상이 거리퍼레이드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거리퍼레이드의 특성상 축제의 행사 초반에 이루어지는 행사이다 보니, 본 축제를 6일간의 전 기간을 참여하지 못하면 참

성별 거리퍼레이드 참가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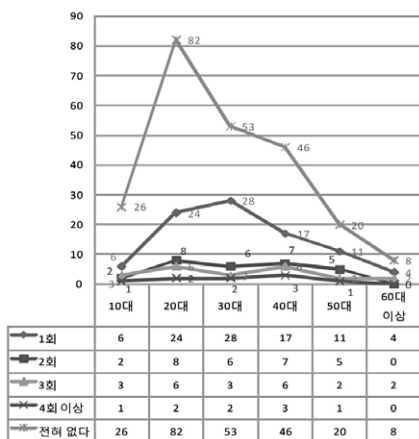
거리퍼레이드 참가 분석



〈그림 9〉 성별로 본 거리퍼레이드 참가횟수 분석 〈그림 10〉 횟수로 본 거리퍼레이드 참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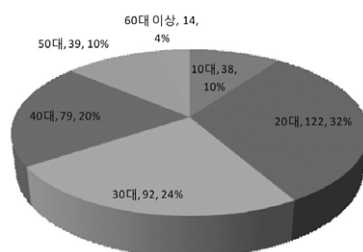
여할 수 기회를 박탈당하기 때문으로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거리퍼레이드’의 행사를 축제기간 중 오프행사의 성격이 아닌 총 축제기간 중 계리라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연령별 거리퍼레이드 참가횟수



〈그림 11〉 연령별로 본 거리퍼레이드 참가횟수 분석

연령별 거리퍼레이드 참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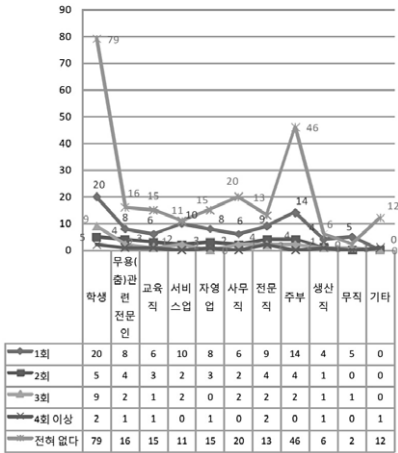


〈그림 12〉 연령별로 본 거리퍼레이드 참가 분석

②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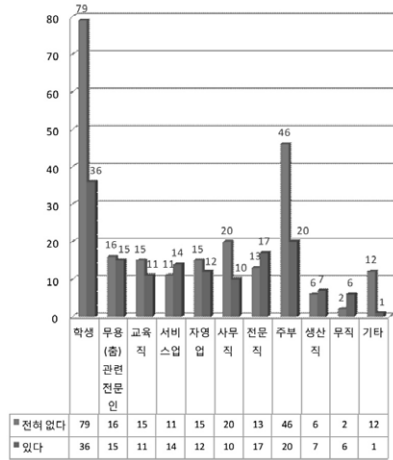
〈그림 11〉과 〈그림 12〉의 연령별 분석에서는 앞의 ‘춤경연대회’와 마찬가지로 20대의 연령대가 1회를 관람한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천안시 전체 지역에서 구간별로 열리는 행사이다 보니 축제 참여 중 본인이 놓여있던 위치에서 관람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직업별 거리퍼레이드 참가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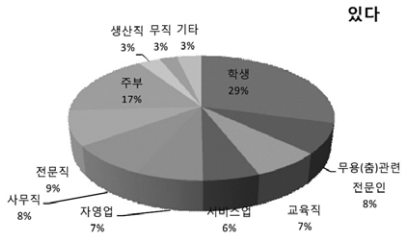


〈그림 13〉 직업별로 본 거리퍼레이드 참가횟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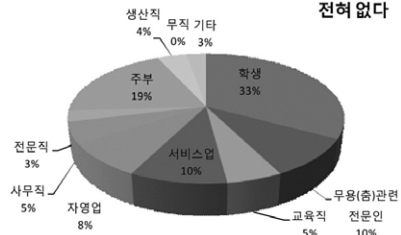
직업별 거리퍼레이드 참가여부



〈그림 14〉 직업별로 본 거리퍼레이드 참가여부 분석



〈그림 15〉 직업별로 본 거리퍼레이드 관람 참여부분 분석



〈그림 16〉 직업별로 본 거리퍼레이드 관람 비참여부분 분석

③ 직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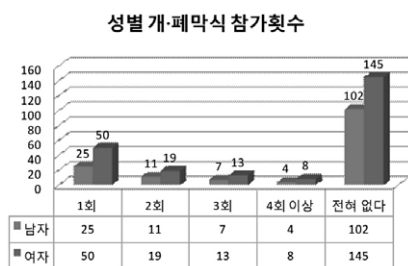
〈그림 13〉과 〈그림 14〉의 직업별 분석을 직업별 참여도만을 백분율로 다시 분석해보면, 학생이 24%로 가장 많이 참여하였지만 반대로 34%의 학생이 가장 많이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도 분석되었다. 〈그림 15〉과 〈그림 16〉와 같이 참여률의 직업별 분포도를 백분율로 살펴보면 참여의 순이 학생 24%, 주부 11%, 전문직 10%, 무용·전문관련인 10%순으로 나타났다.

3) 개·폐막식 행사참여 분석결과 및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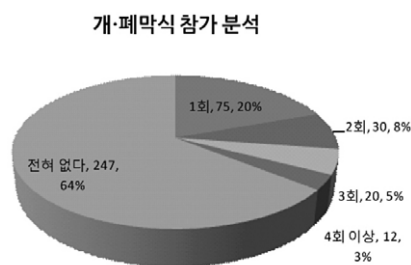
“천안흥타령춤축제”의 주요행사 중 하나인 ‘개·폐막식’은 행사 2일째와 마지막 날에 개최되며 축제의 개막과 폐막을 알리는 가장 큰 공연행사로 많은 전문공연팀의 축하공연과 전년도 수상팀들로 이루어지는 축하행사이다.

‘개·폐막식’의 총 참여한 횟수를 성별과 연령별, 직업별로 아래 <그림 17>~<그림 22>까지의 총 6개의 차트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성별 및 참여횟수



<그림 17> 성별로 본 개·폐막식 참가횟수 분석



<그림 18> 횟수로 본 개·폐막식 참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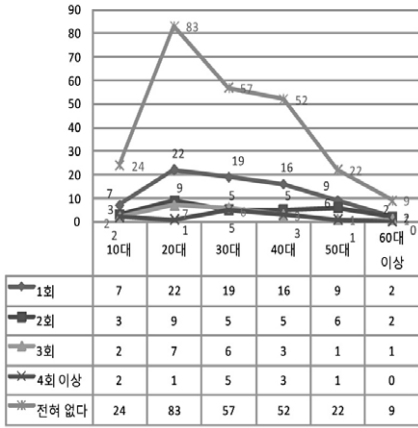
<그림 17>의 성별분포에서는 앞의 ‘춤연대회’ 및 ‘거리퍼레이드’와 마찬가지로 남성보다 여성의 참여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8>에서 전혀 참여하지 않은 빈도가 약 64%로 과반수 이상이 ‘개·폐막식’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앞의 거리퍼레이드와 마찬가지로 ‘개·폐막식’ 특성상 축제의 행사 초반과 후반에 단발성 공연행사로 이루어지다 보니, ‘개·폐막식’ 공연시간을 맞추지 못하면 참여할 수 기회를 박탈당하기 때문으로 유추할 수 있다.

②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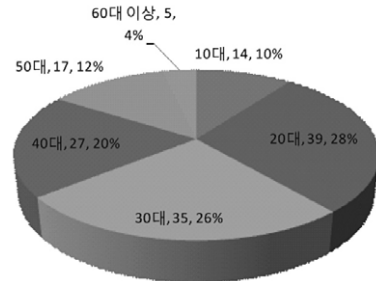
<그림 19>과 <그림 20>의 연령별 분석에서는 앞의 ‘춤연대회’ 및 ‘거리퍼레이드’와 마찬가지로 20대의 연령대가 1회를 관람한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연령별 참가자만을 백분율로 재분석한 순위는 20대 39%, 30대 26%, 40대 20%, 50대 12%, 10대 10%, 60대 이상이 4%로 순으로 분석되었다.

연령별 개·폐막식 참가횟수



〈그림 19〉 연령별로 본 개·폐막식 참가횟수 분석

연령별 개·폐막식 참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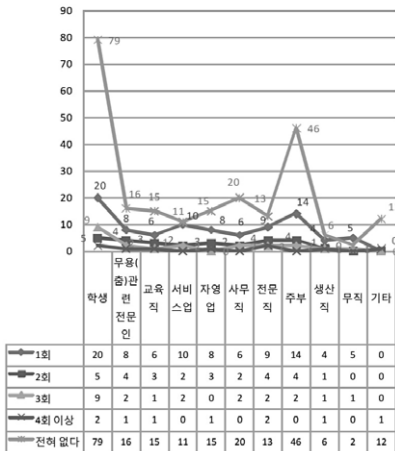


〈그림 20〉 연령별로 본 개·폐막식 참가자 분석

③ 직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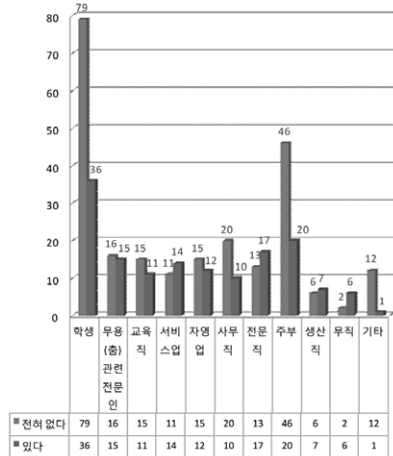
〈그림 21〉과 〈그림 22〉의 직업별 분석을 직업별 ‘개·폐막식’ 참여도를 분석해보면, 학생, 주부, 전문직 순으로 나타났다며 학생이 가장 많이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도 분석되었다.

직업별 거리페레이드 참가횟수



〈그림 21〉 직업별로 본 개·폐막식 참가횟수 분석

직업별 거리페레이드 참가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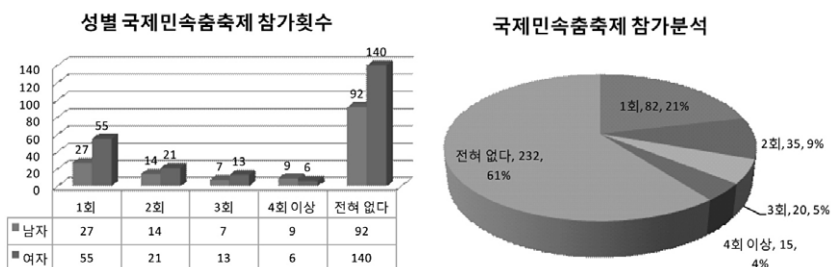
〈그림 22〉 직업별로 본 개·폐막식 참가여부 분석

4) 국제민속춤축제 행사참여 분석결과 및 논의

“천안흥타령춤축제”의 주요행사 중 하나인 ‘국제민속춤축제’는 국내외의 전통민속춤경연대회와 개막식 등의 행사에 참여하며 참가자격은 지역, 나이, 국적 제한없이 30명 내외로 구성하여 본선 15분 이내, 결선 5분 이내로 준비하여 참가하는 경연대회 형식이다. 해외팀의 경우 국내 체제비와 개막식 등의 행사 참여를 위한 일부의 공연비가 지원되며, 민속촌과 천안지역 관광지 견학 등 한국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국제민속춤축제’의 총 참여한 횟수를 성별과 연령별, 직업별로 아래 <그림 23>~<그림 28>까지의 총 6개의 차트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성별 및 참여횟수



<그림 23> 성별로 국제민속춤축제 참가횟수 <그림 24> 횟수로 본 국제민속춤축제 참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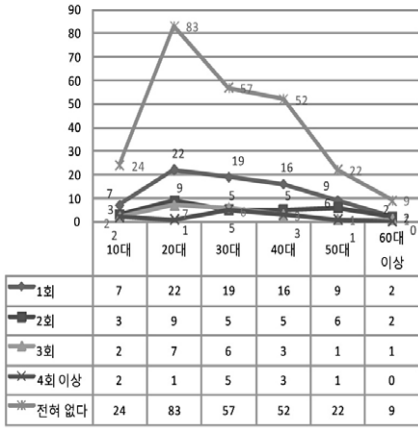
<그림 23>의 성별분포에서는 앞의 ‘춤경연대회’ 및 ‘거리퍼레이드’, ‘개·폐막식’과 마찬가지로 남성보다 여성의 참여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4>의 참여빈도에서는 전혀 참여하지 않은 빈도가 약 61%로 과반수 이상이 앞의 ‘거리퍼레이드’와 마찬가지로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②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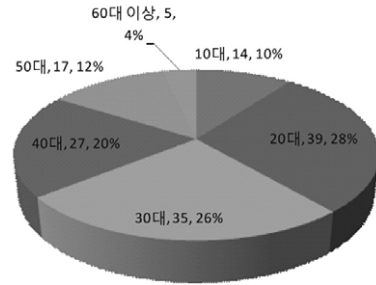
<그림 25>과 <그림 26>의 연령별 분석에서는 앞의 ‘춤경연대회’ 및 ‘거리퍼레이드’, ‘개·폐막식’과 마찬가지로 20대의 연령대와 40대, 30대 순으로 1회를 관람한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빈도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이는 20대, 30대, 40대 사회적 주요 연령층이 자주 접할 수 없는 국제민속춤 행사에 고루 관심을

연령별 개·폐막식 참가횟수



〈그림 25〉 연령별로 본 국제민속춤축제 참가횟수 분석

연령별 개·폐막식 참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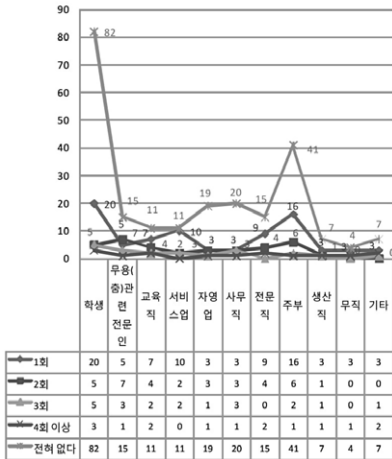
〈그림 26〉 연령별로 본 국제민속춤축제 참가 분석

가지고 있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 26〉와 같이 횟수와 상관없이 연령별 비참여자를 제외한 참가자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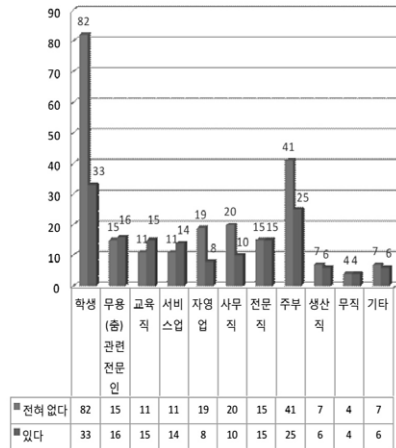
을 백분율로 재분석한 순위는 30대 26%, 20대 24%, 40대 23%, 50대 15%, 10대 8%, 60대 이상이 4%로 순으로 분석되었다.

직업별 국제민속춤축제 참가 횟수



〈그림 27〉 직업별로 본 국제민속춤축제 참가 횟수 분석

직업별 국제민속춤 참여부



〈그림 28〉 직업별로 본 국제민속춤축제 참가여부 분석

③ 직업별

〈그림 27〉과 〈그림 28〉의 직업별 분석을 직업별 ‘국제민속춤축제’의 참여도를 분석해보면, 학생, 주부, 무용관련전문인, 교육자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생이 가장 많이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도 분석되었다.

5) 춤난장판 행사참여 분석결과 및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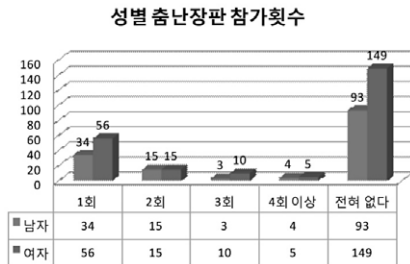
“천안홍타령춤축제”의 부대행사 중 하나인 ‘춤난장판’은 주요행사는 아니지만 무용(춤) 장르를 직접 배워보고 느끼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그 의의가 있다. 주요 내용은 여러 장르의 춤 따라배우기, 해외민속춤 배우기, 시끌벅적 댄스파티 중 가장 무용(춤) 장르가 대중과 함께 가장 가깝게 만날 수 있는 행사이다. 축제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무용(춤)의 대중화를 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행사라 하겠다.

‘춤난장판’의 총 참여한 횟수를 성별과 연령별, 직업별로 아래 〈그림 29〉에서 〈그림 34〉까지의 총 8개의 차트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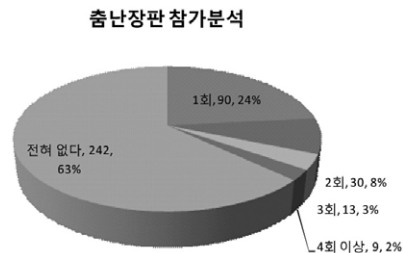
① 성별 및 참여횟수

〈그림 29〉의 성별분포에서는 앞의 ‘춤경연대회’ 및 ‘거리퍼레이드’, ‘개·폐막식’과 마찬가지로 남성보다 여성의 참여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특이한 점은 남성과 여성의 빈도 격차차이가 타행사보다 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참여형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남성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참여형 프로그램에 있어서 남성들이 보다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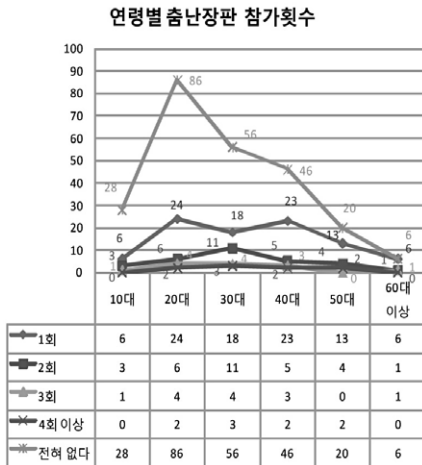
〈그림 29〉 성별로 본 춤난장판 참가횟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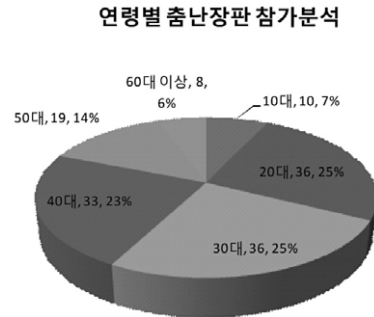
〈그림 30〉 횟수로 본 춤난장판 참가 분석

커플형이나 가족형 프로그램의 개편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그림 30〉의 참여빈도에서는 전혀 참여하지 않은 빈도가 약 63%로 과반수 이상이 앞의 주행사인 ‘춤경연대회’를 제외하고 다른 행사와 마찬가지로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1〉 연령별로 본 춤난장판 참가횟수 분석



〈그림 32〉 연령별로 본 춤난장판 참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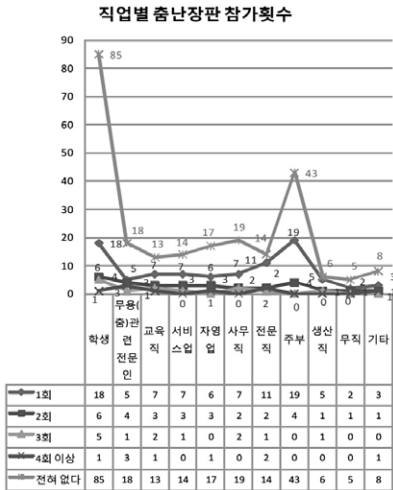
② 연령별

〈그림 31〉과 〈그림 32〉의 연령별 분석에서는 앞의 모든 행사와 마찬가지로 20대의 연령대와 40대, 30대 순으로 1회를 관람한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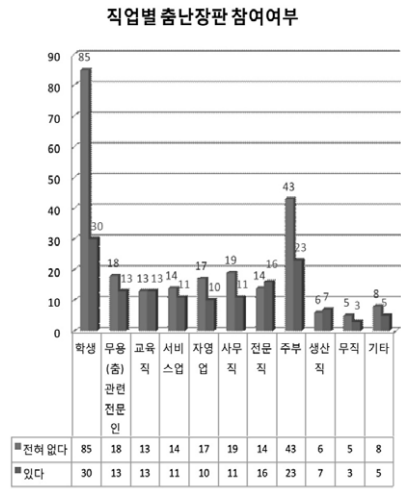
하지만 〈그림 32〉와 같이 횟수와 상관없이 연령별 비참여자를 제외한 참가자만을 백분율로 재분석한 순위는 20대와 30대 모두 25%로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40대 또한 23%로 격차가 높지 않게 분석되었다. 이는 참여형 행사에 20~30대가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40대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을 증명한다. 앞으로 무용(춤)장르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참여형 프로그램의 다양한 각도에서의 기획이 적극적으로 필요로 하다.

③ 직업별

〈그림 33〉과 〈그림 34〉의 직업별 분석을 직업별 ‘국제민속춤축제’의 참여도를



〈그림 33〉 직업별로 본 춤난장판 참가횟수 분석



〈그림 34〉 직업별로 본 춤난장판 참가여부 분석

분석해보면, 학생, 주부, 무용관련전문인, 교육자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생이 가장 많이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도 분석되었다.

2. “천안흥타령춤축제 2011” 관람객 춤공연행사 관련 비참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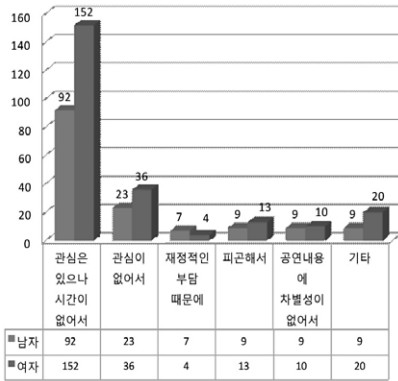
위의 무용(춤) 장르와 관련된 주요행사와 참여행사에 대한 2011년도 관람객들의 참여와 관련된 분석을 했다.

아직까지 주행사인 ‘충경연대회’를 제외한 나머지 주요행사들에 대한 관람객들의 비 참여도가 60%이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아직까지 “천안흥타령춤제”가 무용(춤)장르에 대한 일반 관람객들의 대중화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따라서 일반관람객들이 6일간의 행사기간동안에 많은 주요프로그램들을 향유하고 있지 못하는 이유를 위와 마찬가지로 성별, 연령별, 직업별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림 35〉에서 〈그림 40〉까지의 비참여 이유를 살펴보면 성별, 연령별, 직업별 모두 ‘관심은 있으나 시간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결과가 60%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참여하지 않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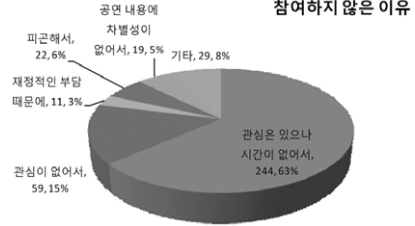


〈그림 35〉 성별로 본 비참여 이유 분석

데 긍정적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림 38〉의 기타에 해당하는 비참여 이유로는 ‘홍타령대회를 예선부터 본선까지 계속 보는 것은 시간적 소요가 많이 들어 지루할 뿐 아니라 타지역에서 오는 관람객은 힘들다’, ‘춤의 내용이 다 비슷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예선공연은 공연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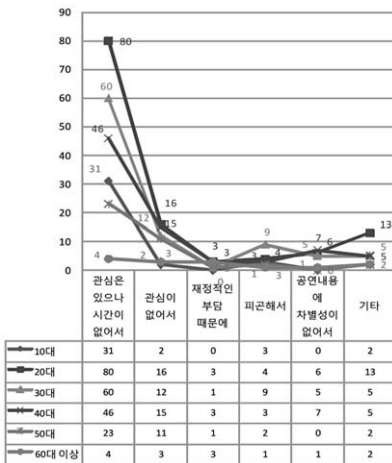
참여하지 않은 이유



〈그림 36〉 횡수로 본 비 참여이유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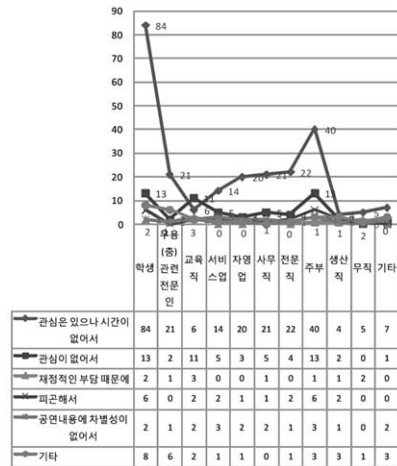
그 뒤를 이어 ‘관심이 없어서’가 약 15% 정도로 나타났다. 재정적 이유라는 응답은 가장 낮아 축제에 드는 소요비용이 부담없다는 것이 추후 대중화를 하는

연령별 참여하지 않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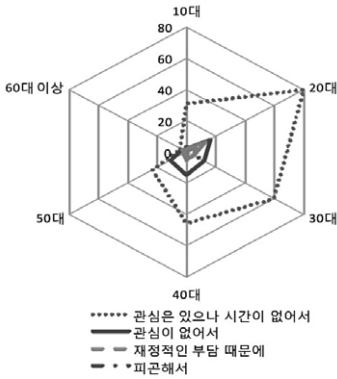
〈그림 37〉 연령별로 본 비참여 이유 분석

직업별 참여하지 않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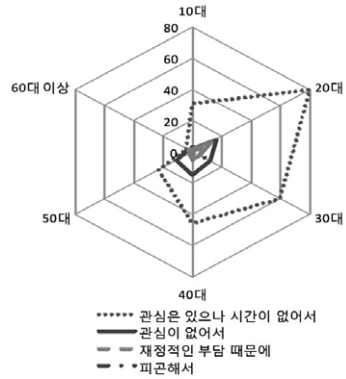


〈그림 38〉 직업별로 본 비참여 이유 분석

연령별 참여하지 않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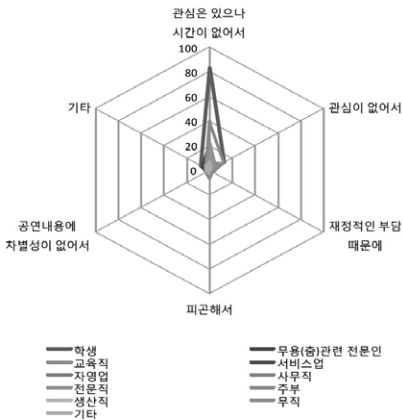


연령별 참여하지 않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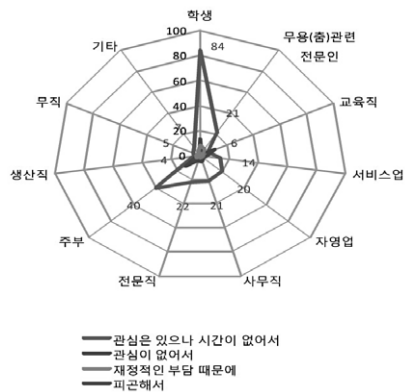


〈그림 39〉 연령별로 본 비참여 이유 분석

직업별 참여하지 않는 이유



직업별 참여하지 않는 이유



〈그림 40〉 직업별로 본 비참여 이유 분석

내지가 없고 관람객도 적어서’, ‘지역특산물이 타지역보다 비싸서’, ‘야외공연인데 10월은 추운감이 있어서’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3. 선행연구와 본 연구결과와의 비교분석

본 연구자(2011)의 ‘천안향타령춤축제를 통해 본 무용장르를 활용한 지역브랜드

확립에 관한 연구’의 선행연구에서 2007~2011년까지의 4년간 일반사항을 교차분석된 결과와 본 연구의 총 5개 주요프로그램의 성별, 연령, 직업별로 관람객 참여의 교차분석한 결과를 비교분석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2007~2011년까지의 행사 관람객의 성별에 관한 결과는 2007년을 제외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여성의 비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인 “천안흥타령춤축제 2011”의 관람객들의 축제 행사의 성별 참여분석에서 모두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과 무관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둘째로 2007~2011년까지의 행사 관람객의 연령별 결과에서는 ‘20대’가 가장 많이 참여한 것을 알 수 있으며, ‘10대’와 ‘60대’의 참가는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특징적인 점은 축제의 횟수와 년수가 높아질수록 ‘30대’, ‘40대’, ‘50대’의 참여비율이 계속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인 “천안흥타령춤축제 2011”의 관람객들의 축제 행사의 연령별 참여분석에서 <표 2>와 같이 국제민속춤대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20%의 참여율이 높았으며, 20대부터40대까지의 고른 참여분포를 나타냈다.

셋째로 2007~2011년까지의 행사 관람객의 동반 유형별 결과에서 ‘가족/친지’와 ‘친구/연인’의 형태가 많이 참여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축제의 횟수와 년수가 높

<표 2> “천안흥타령춤축제 2011” 연령별 참여순위

순위	춤연대회	거리퍼레이드	개·폐막식	국제민속춤축제	춤난장판
1순위	20대 / 32%	20대 / 32%	20대 / 28%	30대 / 26%	20대 / 25%
2순위	30대 / 24%	30대 / 24%	30대 / 26%	20대 / 24%	30대 / 25%
3순위	40대 / 20%	40대 / 20%	40대 / 20%	40대 / 23%	40대 / 23%

<표 3> “천안흥타령춤축제 2011” 직업별과 연령대 비교 참여순위

순위	춤연대회		거리퍼레이드		개·폐막식		국제민속춤축제		춤난장판	
	직업	연령	직업	연령	직업	연령	직업	연령	직업	연령
1순위	학생	20대	학생	20대	학생	20대	학생	30대	학생	20대
2순위	주부	30대	주부	30대	주부	30대	주부	20대	주부	30대
3순위	무용전문인	40대	전문직	40대	무용전문인	40대	무용전문인	40대	전문직	40대

아질수록 ‘단체/모임’의 참여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인 “천안흥타령춤축제 2011”의 관람객들의 축제 행사의 직업별 참여분석에서 <표 3>와 같이 1순위는 학생으로 20대의 연령과 부합하며 조남규 (2011) 선행연구 중 동반유형결과에서의 ‘친구/연인’ 또는 ‘단체/모임’, ‘가족/친지’의 증가와 상관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분석을 통해 2011년까지의 결과 중 행사 관람객의 성별은 여자의 참여율이 높은 것은 2011년 직업별 분석에서 주부의 참여율이 높은 것과 상관관계를, 연령별에서는 20대의 학생과 여성의 참여가 가장 많이 참여한 것과 그 뒤로 30대, 40대의 주부의 참여 증가와의 상관관계는 결국 20대, 30대, 40대, 50대 여자의 참여비율이 증가는 ‘가족/친지’와 ‘친구/모임’의 형태의 참여가 높아지고 있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냈다.

V. 결 론

본 연구자의 2011년 무용(춤)이라는 매개 장르를 이용한 “천안흥타령춤축제”의 관람객 참여분석을 통한 연구결과, 천안이라는 지역브랜드를 좀 더 극대화 할 수 있는 요소로서 무용장르가 사용되어졌음이 밝혀졌다. 하지만 무용(춤)을 브랜드로 한 “천안흥타령춤축제”의 세부프로그램의 관람객 참여분석을 통한 무용(춤)장르의 대중화의 역할을 밝히는 본 연구결과에서는 아직까지 많은 부분 미진함 점이 나타나, 축제를 이용한 무용(춤)장르의 대중화에는 좀 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람객의 성별을 통한 분석에서는 5개 행사 모두 여성의 참여빈도가 남성보다 높았으며 남녀 간의 격차도 높았지만 참여형 프로그램인 춤난장에서만은 남성과의 격차가 매우 낮았다. 이를 통해 남성도 참여할 수 있는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커플댄스프로그램이거나 플래시몹 또는 라인댄스와 같은 전체군무를 통해 남성들도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형 무용프로그램의 기획이 필요하다.

둘째, 참여자들의 연령과 직업별 참여빈도의 분석 결과를 통해 연령별, 직업별 맞춤형 티켓 무용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축제 내에 참여형과 관람형의 프로그램 구성비를 맞추어야 할 것이다.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본 축제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예선전 등을 좀 더 세심하게 기획하여 축제를 구성하는 기초 단계로서의 쇼케이스 정도가 아닌 축제 내의 관람형 프로그램으로 좀 더 세심한 기획구성이 필요하다.

셋째, 주행사인 ‘춤경연대회’의 80%이상의 참여를 제외하고, 본 축제의 타 프로그램들은 비(非)참여율이 60% 이상 높았다. 이는 아직까지 본 축제 내에 무용장르로 구성되어 있는 주요프로그램들이 대중적 요소가 미비하거나 축제의 주요프로그램으로 명확한 역할을 개발하지 못한데 있다. 6일 정도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축제의 길지 않은 기간 속에서도 계속 머물고 싶도록 유도할 수 있는 유기적인 무용장르 프로그램의 미비함을 뜻하는 것이며, 반대로 무용의 대중화를 위해 참여관람객의 심리를 읽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의 미흡함이 증명되었다.

2011년 본인의 선행연구를 통해 무용장르를 이용한 “천안홍타령춤축제”가 지역적 브랜드로 성공적인 자리매김이 된 결과는 보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반관람객들이 본 축제 속에서 지속적으로 머물며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무용축제 콘텐츠로는 지금의 현 프로그램들이 미흡하다 하겠다.

무용(춤)이라는 장르적 특성이 춤과 음악, 연기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종합적 예술장르로, 무용(춤)이 지역축제에서 성공할 수 있는 지역브랜드로서 주제성을 보여주는 긍정적 매개 콘텐츠임은 여러 결과를 통해 입증되었다. 이에 본 축제 내의 주요 프로그램들 속에 무용(춤)장르의 장점과 역할을 이용한 대중화를 위한 몇 가지 실천·실행방안만 구축된다면 본 축제를 통해 무용(춤)의 대중화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참고문헌

- 문화관광부(2006). 심층조사보고서「한국지역축제 조사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II」.
문화관광부.
- 조남규(2011). 천안흥타령춤축제를 통해 본 무용장르를 활용한 지역브랜드 확립에
관한 연구. 『한국무용과학회지』 26: 69-85.
- 박미향 외 2(2005). 무용공연의 효율적 기획을 위한 마케팅 전략, 『무용예술학연
구』 15: 99-121.
- 천안시(2007). 천안흥타령축제 2007 평가보고서.
- 천안시(2008). 천안흥타령축제 2008 평가보고서.
- 천안시(2010). 천안흥타령축제 2010 평가보고서.
- 한양명(2005). 요사코이소란마츠리를 통해 본 지역축제의 성공요인. 『비교민속학』,
28: 457-484.
- 홍승덕(2008). 지역 축제에서 청소년 참여활성화방안 연구: 2007 천안흥타령축제
를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논문투고일	2012년	4월	15일
심사일		4월	20일
심사완료일		4월	28일

Abstract

The method to popularize dance genre through analyzing the audience attending to “Cheonan World Dance Festival 2011”

Cho Nam-Gyu

*Professor Sangmyung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of Art & Desig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the way to popularize dance genre through analyzing the audience who attended to the five important festivals of “Cheonan World Dance Festival 2011” such as ‘Dance Competition’, ‘Street Parade’, ‘International Folk Dance Contest’, which are the main events and the sub-event, ‘Chum Nanjang’. This festival took place for 6 days from 2011. 09. 28(wed) ~ 10. 03(mon) throughout the whole area in Cheonan city.

In this research I classified the audience who attended to “Cheonan World Dance Festival 2011” by sex, age, and profession. By analyzing tendency of their past experience in festivals and its numbers of attending, a positive way of thinking against dance was derived. Also, based on the result of this analysis, I intend to deliver the method to popularize dance through this kind of festival.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analysis through sex of the audience female attended much more than male did and the gap was wide. For ‘Chum Nanjang’, which is more “participating” program, the gap between two sexes were very narrow. As showed, it is need that participating style programs, such as couple dance, flash mob, or line dance, which more male can participate and enjoy, be produced more.

Second, it is needed the programs be targeted and custom made based on ages and professions of audience. More detail plan should be accomplished not only on participating type programs but also competition viewing ones.

Third, the non-attendance rate was high as 60% except the main event ‘Dance Competition’. This happens because programs with popular code are not well developed and it means that organically working dance genre programs where people want to stay and enjoy should be continually developed. In 2011, through my

precedence research, although it has been shown that “Cheonan World Dance Festival” dance genre settled down as a local brand, it is not enough to be a content that ordinary people can access easily and enjoy comfortably.

As dance genre is a comprehensive art form, it offers versatile amusement such as dancing and music. It has been proved by many researches that dance is a positive medium content that can be successful at the local festivals. If a few practical ways are established, as taking place successful festivals, it is not impossible to make dance genre popular.

keywords: Cheonan World Dance Festival(천안홍타령춤축제), Local festivals(지역축제), Dance(무용/춤), Dance Content(무용경연대회), Popular of Dance genre(춤의 대중화)